

전북도민 86% 유권자, 투표 인증샷 주의해야

27~28일 사전투표, 유권자 153만여명
투표소 밖 손가락 기호 등 인증샷 가능
투표소 안이나 투표지 촬영 등은 금지

정성학 기자 csh@sjeonews.com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D-5

6.1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투표 인증샷에 각별히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선거위에 따르면 투표 독려 차원에서 찍는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 또는 그 입구에 설치한 표지판 등을 활용해 촬영하는 게 허용된다.

아울러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삼아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투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은 금지된다.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도 안된다.

공직선거법상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선거사무종사자 폭행이나 협박, 투표용지 손괴나 훼손, 선거사무 집행 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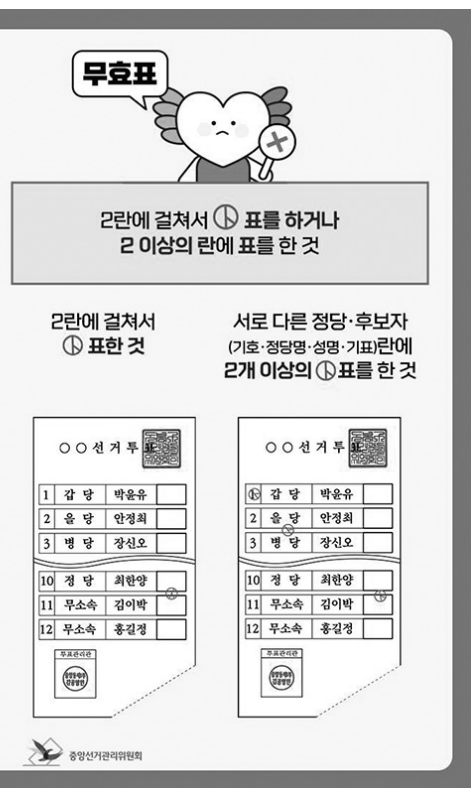
한편, 도내 유권자는 전체 인구 대비 약 86%인 총 153만 2,1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7회 지선 때보다 0.3%(4,404명) 적다. 성별론 여성 유권자(77만4,938명)가 남성(75만7,195명)보다 좀 더 많았다.

연령대별론 50대가 전체 20%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70대 이상(19%), 60대(18%), 40대(17%), 20대(13%), 30대(12%) 순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층 출향행렬 등의 여파로 20~50대 유권자는 감소세를, 60대 이상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선 투표는 이번이 처음인 18세 유권



자는 모두 1만7,577명이다. 이들은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된 선거연령을 18세까지 낮추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엔 단체장과 교육감 등 지방 선출직 공무원도 직접 뽑게 됐다.

지역별론 전주(55만442명), 익산(23만9,077명), 군산(22만4,926명), 정읍(9만3,307명), 완주(7만8,284명), 김제(7만2,358명), 남원(6만9,007명) 등의 순이다.

장수(1만9,380명)는 전체 유권자가 2만명에도 못미쳐 가장 적었다.

신임 도의장 최찬욱, 부의장은 오평근

전북도의회 의장단 보궐선거

전북도의회 신임 의장에 최찬욱(전주10), 제1부의장에 오평근(전주2)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두 의원은 26일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 겸 의장단 보궐선거에서 이 같이 당선됐다. 임기는 올 6월 말까지다.

최 의장은 “제11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간 우여곡절의 파고를 지나온 도의회의 위상을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남은 기간 11대 도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제12대 도



의회의 차질없는 개원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의회 6선과 시의장,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과 윤리특위위원장 등의 경험과 역

량을 살려 소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11대 도의회가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부의장 또한 “잔여임기가 짧지만 의장단 직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의원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이 민의의 전달에 자랑스럽게 기록되고, 12대 도의회가 도민들의 신뢰 속에 개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선은 전체 재직의원 31명 중 19명이 출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최 의장과 오 부의장은 각각 17표를 받아 당선 처리됐다.

앞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의총을 열어 이들을 의장단 보선 후보로 올렸다.

/정성학 기자

전북도, 찾아가는 어린이 인형극 재개

코로나19 파동으로 중단됐던 시·군 순회 어린이 인형극 공연이 3년만에 재개됐다.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지난 25일 정

읍시를 필두로 이 같은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행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순회 공연은 올 10월 말까지 모두 20회 무

대에 오르고 모여라꿈동산, 조이kids&Friend, 극단푸른솔, 누리도담인형극단 등 4개 극단이 참여한다. 공연작은 △푸비 메가파워 △카멜레온 애벌레, 하마와 친구들 △깨끗한 것은 싫어 △돼지잠이 들려주는 의좋은 형제 등 4개 작품이다.

/정성학 기자

“정헌율-임석삼 익산시장 후보 사과하라”

임태백, 방송 토론회 기피 비판

무소속 임태백 익산시장 후보(사진)가 더불어민주당 정헌율, 국민의힘 임석삼 후보를 향해 방송 토론회 무산에 책임지고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 후보는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오후 2시 지역방송인 금강방송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익산시장 후보 토론회가 정헌율, 임석삼 후보의 알 수 없는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이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자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약속이나 한듯이 토론회를 기피하는 것은 정당인으로서도 부끄러



운 일이다. 특히 지역에서 오랫동안 도민의 사랑을 독차지해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토론회 기피는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며 “즉각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공개 토론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무소속 나기학, 채남덕 군산시장 후보와 김진 군산시의원 후보가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임준 군산시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강임준, 종교인 오찬 간담회 논란

나기학-채남덕, 군산시장 후보 사퇴 촉구

“식사 대접하고 지지 호소는 선거법 위반”

강임준, “정례적 간담회…흑색선전 개탄”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가 종교인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가 논란이다.

무소속 나기학, 채남덕 군산시장 후보와 김진 군산시의원 후보는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공의 제보를 통해 강임준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 당한 사실이 파악됐다. 지난 3월 말께 군산지역 성직자 리더 7명을 초청해 점심을 대접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라며 “이 같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즉각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강임준 후보는 본인과 측근에 관련해 많은 비리 의혹에 휩싸여 도저히 선택할 수 없다는 불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며 “부디 진실 앞에 솔직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명명백백 밝혀지지 않

는 채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권력을 다시 쥔가 두렵다 호소하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지 궁금하다. 이대로 선거가 마무리 돼 적폐세력이 또다시 군산시의 수장이 된다면 시민이 들고 일어섰다고 한다”며 거듭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강임준 군산시장후보선거사무소는 곧바로 같은 곳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가 제기된 모임은 재임기간 중 진행한 정례적인 간담회를 뿐”이라고 반박했다.

강 후보측은 “해당 모임은 불교단체인 사암연합회 임원진과 가진 간담회였으며, 당초 매년 초 정례적으로 진행했던 것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기한 것이고, 간담회가 끝난 후 여러 대화 중 대선과 선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 일상적 덕담 수준의 대화가 오갔을 뿐이었다”며 “현행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 같은 단체와의 간담회는 군산시장의 정당한 직무 행위이며 정상적인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논할 가치조차 없는 흑색선전으로, 지방선거를 끝까지 혼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김제시 공고 제2022-408호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김제 부량면 용성리 일원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농지법」 제31조제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 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27.
김 제 시 장

1. **공고목적** :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결정(변경)(안)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주민의견청취

2. **열람내용**
가. 개 요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결정(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1) 위 치 :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6-26, 226-27번지

2) 규 모 : 체육시설 신규결정 7,600㎡

3) 내 용
가) 체육시설 신규결정 7,600㎡

나) 용도지역 변경
- 농림지역(7,980㎡) → 계획관리지역(7,980㎡)

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해제 면적 : 7,98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열람장소에 비치한 열람조서·도서 참조

3. **열람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919)

5.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6.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0고단2636

퇴거불응

피고인 장창열

위 피고인은 퇴거불응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2. 5. 13.
판사 김경선

지구를 살리는 늘푸른생각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늘푸른생각이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탄소운동 첫걸음! 종이컵 줄이기